

# 위 프로젝트

Wee



2025년 봄호

Vol. 73

마음 먼저 챙겨요



## 미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 전문가 칼럼 · 02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위(Wee)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훈호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박상용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허난설

### 현장의 소리 · 10

**울릉도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월릉이와 오뎀이로 시작하는 첫걸음**

인동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수미

**사랑과 우정의 생활공동체**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가정형 위(Wee)센터 센터장 김진영

**협력과 소통의 위(Wee) 클래스 만들기**

진접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박종권

**위(Wee) 클래스 손에 위(Wee) 센터 손잡고, 지역사회로!**

덕은한강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진경

### 이슈브리프 · 18

**온·오프라인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청소년지원 사업: 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정책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노성덕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적용하고 검증할 것인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인수 | 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수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반지윤 | 경일대학교 교육학

신처 교수 이보람

## 위(Wee), 알려드립니다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khain1225@nypi.re.kr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해인



전문가 칼럼

#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위(Wee)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훈호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 또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선제적 혹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의 대상 또한 특수교육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범위를 매우 좁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 또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8월에 발표된 정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이나,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성장기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지원,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전문 컨설팅단과 함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 강화 정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며, 전문상담교사나 교육복지사 등 특정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연계·협력하는 '통합 지원'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학교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이길재 외, 2024), 마음건강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통합 복지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장이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조정 및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복합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학교 전체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에 포함된 교원 대상 의견수렴 결과에도 잘 나타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관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요컨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은 위기학생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원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그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음건강 상태나 지원 요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 지원이나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생 지원 체계는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기 미망할 정도로 학교는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학생의 대부분이 한 가지 위기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뒤얽힌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한 번의 지원 또는 어떤 한 가지 지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는 학교 구성원들의 연계·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가급적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행·재정적 자원이 신속하게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계’와 ‘협력’이 단순히 MOU 체결이나 포괄적인 지원 및 협조 약속만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인적·물적·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학생의 지원 요구 유형에 따라 체계화하고, 학교가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가능한지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정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청소년안전망’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교육취약학생 발굴 및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이분법적 구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원이 가장 절실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청소년안전망과 교육복지안전망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두 개의 안전망 사이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두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지원 요구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행·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또는 직접 사례관리 전환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교육지원청 내에서 누가 수행할지입니다. 현재 각 교육청마다, 심지어 한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에 따라 교육복지나 마음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천차만별이고, 이들의 관계나 업무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증가하면서, 기존 위(Wee) 센터나 기초학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교육비, 위(Wee) 프로젝트, 기초학력,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예방, 아동학대예방, 다문화, 장애학생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한·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와 업무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2024년 12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제8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범위에는 기초학력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14개 이상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복지지원	경제지원	학업지원
	2개	2개	4개
연계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 교육비 - 교육급여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구분	심리·정서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
	1개	3개	2개
연계사업	- 위 (wee) 프로젝트	-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다문화 - 특수

다만, 이를 계기로 ‘학교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고,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각 센터들이 전문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업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되, 위(Wee) 센터를 비롯한 각 분야별 센터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센터 간 관계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Wee) 센터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위(Wee) 센터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Wee) 센터의 핵심 기능을 학교에서 요청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사례관리에 둘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설치된 위클래스가 학교장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함께 위

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support)'하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등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supervising)하는 역할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Wee) 센터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데, 수석교사 정원 중 일부를 전문상담교사에 배정하고 선발된 수석교사(전문상담교사)를 위(Wee) 센터 실장에 포함으로써 관내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이나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보상으로 수업시수 50%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수석교사로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등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위(Wee) 센터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 및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추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학습, 관계, 생활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원 요구를 조

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또는 담임교사가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학생의 위기 상황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얹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교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의 전문성이 적절히 결합해야 비로소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위(Wee) 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기학생과 그 가정에 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4). 학생 마음건강은 키우고, 교사 마음부담은 줄이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이길재, 김영삼, 김훈호, 신연옥, 심현기, 정바울, 최정윤 (2024).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고도화 연구. 충북: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전문가 칼럼

##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박상용



6시 55분... 고3 아들이 짜증을 내며 아침부터 엄마와 한 판을 벌인다. 7시에 일어나려 했는데 엄마가 5분 일찍 깨웠다는 게 그 이유다. 이렇게 휴일 이른 아침에도 평온과 평화는 귀하다. 정작 개학은 내일인데... 앞으로 매일 펼쳐질 장면의 예고편을 본 듯 벌써 아찔해져 온다.

사는 모양이 이렇진대 전문가 칼럼이라니!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넓은 아량을 기대하며 짧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엮어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 대구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던 결과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내 연구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관심은 예상과 달리 학교에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히려 행복해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략 10~15%의 아이들에 있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궁금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 아이들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시도를 경험했던 소위 정서적 고위험군이었거나 우울, 불안 등이 상대적으로 심했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던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학교지만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책상에 칸막이가 있고 식당에서도 각자 조용히 밥 먹고,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훨씬 마음 편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다시 일상을 찾은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다. 다른 사람의 눈과 관심에서 벗어난 일상을 보다 편하게 생각했던 투명 인간으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던 아이들을 이젠 제대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 사는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이야기다. 몇 해 전 주말 저녁,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기대하며 동네 횡집에 들렀는데 아이가 그만 수족관을 깨뜨려 버렸다. 아이는 강이나 바다에 살아야 할 물고기들이 좁은 수족관에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 구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부모와 가게 주인은 말을 잃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 누구네 아이 덕분에 횡집이 넘쳐나니 모두 마을카페에 모여 회파티를 벌이자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 수십여 명이 모여 즐겁게 회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망가진 수족관을 배상하고도 남은 만큼 식대도 모였다. 아이도 부모도 횡집 주인도 아무도 곤란한 사람이 없었고 마음을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 덕분에 모두 한 데 모여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물고기의 마음을 읽어낸 아이를 칭찬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가 그 세상을 볼 수 없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가메다 종합병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병원은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있지만 2024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중 하나다. 그만큼 가메다 병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 병원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감동과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병원은 1985년 일본 민간병원 최초로 구급구명센터로 지정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시골 마을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도심의 종합병원으로 3시간 이상 이송하는 과정에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가메다 병원은 '우리 마을에서 제시간에 치료받지 못해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구급구명센터로 지정받는데 손색이 없도록 갖추었다. 그리고 대개 병원들이 영안실을 지하에 두지만 가메다 병원의 영안실은 가장 높은 13층에 위치해 있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굴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라는 답이 따라왔다. 그리고 또 물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영안실을 천국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가장 비싼 입원실을 비우고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가장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두서없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일부러 글의 의도를 명확히 하진 않았다. 읽는 분들의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양하게 읽고 해석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가장 마음이 힘든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가메다 병원처럼 우리 학교도 매일 교문을 드나드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든 학생'이 누구인

지를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과업이 위(Wee) 프로젝트의 사명이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3월이다. 다시 아이들이 온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썰픈 봄날,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며 버거운 아침을 맞이했을 법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기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했던 말처럼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전문가 칼럼

## 문제의 맥락 속에서 :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허난설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3년 학생 자살률이 10만 명당 4.1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일보, 2024.9.26.).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살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주요 사회적 요인으로 SNS 사용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연관성(Weigle & Shafi, 2023),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보호적 양육 태도와 그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불안 증가(Haidt, 2024), 사이버 불법 도박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각국의 학교 기반 마음건강 위기 대응 정책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에서 학교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학교상담 분야도 이 질문과 관련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 제목만 보아도, 현재 논쟁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상담자 역할에서 상담을 빼는 것은 누구인가?”(Lambie et al., 2019), “기타 지정된 업무로 보는 고등학교 학교상담자의 모호한 역할”(Blake, 2020), “학교에서의 자살 위기 대응: 학교상담자가 아니라면 누가?”(Gallo & Wachter Morris, 2022) 같은 제목들은 학교상담을 둘러싼 논쟁의 깊이를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학교상담자의 역할 규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우선, 학교상담자의 정체성과 직무 모델은 각 국가의 심리상담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 수준 정신건강 대응 체계는 위기 수준에 따라 3단계(tier)로 나뉘며, 학교는 학생 마음건강을 담당하는 1차 기관으로 규정된다(Ladegard et al., 2024). 따라서 2차 및 3차 기관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각기 다른 직무 모델을 기반으로 2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이 많으면 지원이 늘어날 것 같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것이다. 학생의 문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서비스가 한 기관 내에서는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없고, 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계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던 관계를 상실하기 쉽고, 어디에도 의뢰할 수 없는 특정 문제나 대상의 범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상담자의 훈련 모델과 선발 방식은 오랜 기간 변화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직역이 법제화되고, CACREP과 같은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석사 수준 훈련 과정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왔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이에 따라 학교상담 석사 과정의 표준도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5년부터 2016년까지 CACREP 교육과정 인증 기준이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지식 중심에서 성과 역량 중심으로 변화했고, 상담 인턴십 및 직접 상담 실습 시간의 필수화, 데이터 활용과 지역사회 협력 강조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Akos & Duquette, 2022).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2급 및 1급 교육과정과 실습제도 개편이나, 지속적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학교상담자에 적합한 인사 제도 개편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하규영 외, 2022). 이로 인해 현장의 선생님들과 대학교수님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며 교육과 실제 실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이라는 질문은 시대적 난제처럼 느껴진다. 이에 질문의 방향을 바꿔 ‘학교상담이 학교상담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한 바를 이 글을 통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계 기반 제공

첫째, 학교상담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연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건강 위기를 겪는 많은 학생이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정작 학교에서는 지지적 관계 기반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상담 관계의 효과는 상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Wampold, 2015), ‘삶의 중요한 한 토막을 같이 가는 동반자’인 어른의 존재와 ‘정서적 끈끈함의 활용’은 상담 성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학교상담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곳에 자리하며, Walk-in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부 기관에서의 정기 상담과 집중적인 심리 개입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날, 내가 유독 싫은 날, 친구에게 들은 말이 소화되지 않는 날, 학생들이 절실히 대화 상대가 필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학교상담실에서의 따뜻한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살 예방 기제라 할 수 있다.

### 유연하고 창의적인 개입 방식의 적용

둘째,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model)의 핵심은 학교상담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개입 방식의 적용이다. 전학교적 접근,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 등은 학교상담의 정체성과 함께 자주 언급되어 왔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이 내포하는 의미는 여러 층을 이루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학교상담자들이 자문, 조정, 리더십 등을 활용해 개인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개입 모드를 통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추론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회적 집단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이 아닌 취미 기반의 소그룹 활동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중재하거나, 교실 이탈 행동이 잦은 학생의 촉발 요인을 관찰하여 담임교사와 논의하는 것도 이러한 개입 방식의 한 예이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일상 속에서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활동은 여러 장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지연, 2019),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긍정적 영향이 크다(Gallo, Bardhoshi, & Raush, 2020).

### 문제 맥락 속에서의 개입

셋째, 학교상담자들은 학생의 호소 문제 발생 맥락 속에서 개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학교상담자들의 활동 특징 중 하나는, 문제의 맥락 자체에 개입하는 점이다. 상담자들은 수련 과

정에서 내담자의 통찰을 촉진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 태도임을 배운다. 하지만, 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어릴수록, 가정이나 기질 요인의 영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변화 메커니즘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심리적 위기가 장기적인 패턴으로 굳어진 경우, 학생이 자신의 자원을 키우기보다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때 학교상담자는 학생의 담임교사, 교과 교사, 교실 문화 등을 직접 관찰하고, 부모 등 주요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문제의 맥락 자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갖는다.

### 마무리하며

마음건강 위기의 한복판에서 학교상담자들은 늘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가운데, 학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날은 학생과의 따뜻한 대화 한 마디가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된 듯하여 보람을 느끼지만, 어떤 날은 행정적 요구와 복잡한 연계 체계 속에서 소진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상담은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바뀌어도, 학생들에게 따뜻한 어른 한 사람이 되어주려는 학교상담 선생님들에게 이 글이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지연 (2019). 전문상담교사 자문 역할 수행의 장애 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20(2), 253-279.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 (LPC)와 인증프로그램 (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하규영, 이지향, 이지원, 전은경, 박지수, 허난설 (2022). 예비 전문상담교사 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3(6), 49-75.
- 한국일보 (2024.9.26). 작년 초중고 학생 자살 214명, 역대 최고치... 8년 만 두 배 늘었다. 한국일보. [온라인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610390005510]



- Akos, P., & Duquette, K. (2022). *Trends and changes in school counselor CACREP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chool-Based Counseling Policy and Evaluation*, 4(1), 1-10.
- Blake, M. K. (2020). *Other duties as assigned: The ambiguous role of the high school counselor. Sociology of Education*, 93(4), 315-330.
- Gallo, L. L., Bardhoshi, G., & Raush, M. (2020). "That is when my life changed for the better": Students' perceptions of exemplary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6(1), 1-17.
- Gallo, L., & Wachter Morris, C. A. (2022). *Suicide intervention in schools: If not school counselors, then who? Teaching and Supervision in Counseling*, 4(2), 6-24.
- Haidt, J. (2024).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Penguin Press.

- Laidre, K. L., Zahn, M. J., Simon, M., Ladegaard, M., Stafford, K. M., Phillips, E., Moon, T., Stern, H. L., & Cohen, B. (2024). *Narwhal (Monodon monoceros) associations with Greenland summer meltwater release. Ecosphere*, 15(10), e70024.
- Lambie, G. W., Stickl Haugen, J., Borland, J. R., & Campbell, L. O. (2019). *Who took "counseling" out of the role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chool-Based Counseling Policy and Evaluation*, 1(3), 51-61.
- Wampold, B. E. (2015). *How important are the common factors in psychotherapy? An update. World Psychiatry*, 14(3), 270-277.
- Weigle, P., & Shafi, R. M. A. (2023).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Current Psychiatry Reports*, 26(1), 1-8.





현장의 소리

위(Wee) 센터

## 울릉도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 월릉이와 오뎨이로 시작하는 첫걸음

인동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수미



겨울의 끝자락, 여전히 바람은 매섭지만 울릉에서의 2년을 돌아보는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정든 울릉을 떠나며, 지난 제13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릉 위(Wee) 센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섬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울릉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고요합니다. 섬은 늘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 고립된 환경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릉도는 작은 섬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이곳에서 '상담'이란 개념은 낯설고, 아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위(Wee) 센터가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울릉 위(Wee) 센터 전용 로고와 마스크트를 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울릉의 산과 바다를 담은 직

관적인 로고를 만들고 포근한 북극곰과 울릉도를 대표하는 오징어 캐릭터에 재치 있는 스토리를 입혀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마스크트들은 그렇게 '이름짓기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은 '월릉이', '오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월릉이'는 빙하를 타고 울릉도로 떠내려온 북극곰 가족의 아이로, 아름다운 울릉도의 자연과 인간의 맑고 순수한 마음에 반해 정착하기로 결심한 낭만가입니다. 그의 취미는 아이들과 수다 떨기이며, 특기는 오징어로 맘을 닦는 것입니다. 월릉이가 흘리는 맘의 의미는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극복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울릉도(Ulleungdo)와 위(Wee) 센터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뎨이'는 월릉이의 맘을 닦아주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오징어 캐릭터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인데, 울릉군의 특산물인 오징어를 활용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마스크트를 제작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제 전략은 마스크트 굿즈를 통해 위(Wee) 센터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 행사에 활용하고 월릉이와 오뎨이 벽화를 그리기

도 하며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포스트잇, 가방, 우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생에게 나눠준 물건을 학부모님들이 들고 다니기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울릉도 거리에서는 점차 월릉이, 오담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위(Wee) 센터에 기웃거리는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문 앞을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슬쩍 다가가 '간식 줄까?' 물어보면 씩 웃으며 들어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까지 연계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순회 상담 신청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행사 참여도를 비롯해 학부모님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이 꼭 정해진 시간과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 간식을 집어 들며 톡 내뱉은 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든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를 다 돕진 못해도, 단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 다가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려 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힘내길 응원합니다.

